

제 ① 교시

국 어

수험번호 ()

성 명 ()

※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OMR 답안지에 정확히 표기하시오.

1. 다음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용한 예로 옳은 것은?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ㅎ), ㅌ(ㅍ, ㅊ, ㅌ,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 ① 논일[논닐] ② 국물[궁물]
③ 신라[실라] ④ 밥술[밥쑈]

2.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어는?

-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
○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 또는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

- ① 뛰놀다 ② 달리다 ③ 높푸르다 ④ 새하얗다

3. 밑줄 친 단어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말로 적절한 것은?

- 잘못된 대가를 치르다.
○ 가격을 내리자 손님이 늘었다.
○ 타인에 대한 배려는 가치를 매길 수 없다.

- ① 값 ② 몫 ③ 결과 ④ 수치

4. 듣는 이를 높이고 있는 문장은?

- ① 어제는 아버지께서 늦게 귀가하셨어.
② 제가 형 대신 시장에 다녀오겠습니다.
③ 누나는 동생을 데리러 큰택에 갔단다.
④ 나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네.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안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 정지용, 「향수」 -

5.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으로 현실의 모순을 드러낸다.
② 감정을 절제하여 대상을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③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대상을 관찰한다.
④ 후렴구를 사용하여 시 전체에 통일된 인상을 준다.

6. 윗글에 드러난 ‘고향’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가롭고 평화로웠던 공간
②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한 공간
③ 고단하지만 가족들과 단란했던 공간
④ 풍경은 아름답지만 인정이 메마른 공간

7. ㉠~㉣ 중 공감각적 심상이 나타난 것은?

- ① ㉠ ② ㉡ ③ ㉢ ④ ㉣

8. 윗글과 다음 시조의 공통된 정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동지(冬至) ㅅ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春風)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랴.

- 황진이 -

- ① 포근함 ② 기대감 ③ 그리움 ④ 서러움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수령 도망할 제 거동 보소. ㉠ 인궤(印櫃) 잃고 과줄 들고, 병부(兵符) 잃고 송편 들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소반(小盤)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니 거문고요, 깨지느니 북, 장구라. 본관이 똥을 싸고 명석 구멍 새앙쥐 눈 뜨듯 하고 내아(內衙)로 들어가서

[A]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른다, 목 들어라.”

관청색은 상을 잃고 문짝 이고 내달으니, 서리, 역졸 달려 들어 후닥딱

“애고, 나 죽네!”

이때 수의(繡衣) 사또 분부하되,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흰화¹⁾를 금하고 객사(客舍)로 사처²⁾하라.”

좌정(座定) 후에

“본관은 봉고파직하라.”

분부하니,

“본관은 봉고파직이오!”

사대문에 방 붙이고 옥 형리 불러 분부하되,

“네 골 옥수(獄囚)를 다 올리라.”

호령하니 죄인을 올리거늘, 다 각각 문죄(問罪) 후에 무죄자 방송(放送)할새,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짜오되,

“기생 월매 딸이온데, 관정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다?”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守廳)으로 불렀더니 수절(守節)이 정절(貞節)이라 ㉡ 수청 아니 들려 하고, 관전(官前)에 포악한 춘향이로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

춘향이 기가 막혀

“㉢ 내려오는 관장(官長)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수의 사또 듣조시오. ㉣ 층암절벽(層巖絶壁)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靑松綠竹)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

1) 흰화(喧譁): 시끄럽게 떠들. 2) 사처(徙處): 처소를 옮김.

9. 윗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가 사용되었다.
- ② 당대 지배층에 대한 풍자가 드러난다.
- ③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된다.
- ④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령들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 춘향이 하옥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③ ㉢: 어사또의 공명정대함을 칭송하고 있다.
- ④ ㉣: 자연물에 빗대어 춘향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1. [A]와 같은 방식의 언어유희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향이 제주라서 재주가 많구나.
- ② 말이 빠져서 이가 헛나가 버렸네.
- ③ 형편이 없으니까 형이 맨날 지는 거야.
- ④ 서방인지 남방인지 잘난 사람 하나 왔다.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문(序文)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만행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가를 기억해 보라. 인류의 양심을 분노케 했던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지고지순의 염원은 ‘이제 제발 모든 인간이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리라.

유엔 헌장은 이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했고,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 진보를 촉진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고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유엔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3조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 「세계 인권 선언문」 (1948) -

12. 윗글을 선포한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 ② 인권이 침해당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 ③ 유엔 헌장과 세계 인권 선언의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 ④ 인류의 자유와 평등이 확대되는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13.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것은?

- ① 이 선언을 선포한 주체는 누구인가?
- ② 이 선언을 제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 ③ 이 선언으로 권리를 보장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 ④ 이 선언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치는 무엇인가?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당이 있는 집에 산다고 하면 다들 채소를 심어 먹을 수 있어서 좋겠다고 부러워한다. 나도 첫해에는 열무하고 고추를 심었다. 그러나 매일 하루 두 번씩 오는 채소 장수 아저씨가 단골이 되면서 채소 농사가 시들해졌고 작년부터는 아예 안 하게 되었다. 트럭에다 각종 야채와 과일을 싣고 다니는 순박하고 건강한 아저씨는 싱싱한 채소를 아주 싸게 판다. 멀리서 그 아저씨가 트럭에 싣고 온 온갖 채소 이름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 ㉠ 뭐라도 좀 팔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마음 보다 먼저 엉덩이가 들쭉들쭉한다. 그를 기다렸다가 뭐라도 팔아 주고 싶어 하는 내 마음을 아는지 아저씨도 ㉡ 손이 크다. 너무 많이 줘서, “왜 이렇게 싸요?” 소리가 절로 나올 때도 있다. 그러면 아저씨는 물건을 사면서 싸다고 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웃는다. 내가 싸다는 건 댄 물가에 비해 그렇다는 소리지 얼마가 적당한 값인지 알고 하는 소리는 물론 아니다.

트럭 아저씨는 다듬지 않은 채소를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그걸 손질하는 것도 일이다. 많이 주는 것 같아도 다듬어 놓거나 하면 그게 그걸 거라고, 우리 식구들은 내 수고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뒤란으로 난 뒷마루에 퍼더버리고 앉아 흙 묻은 야채를 다듬거나 콩이나 마늘을 까는 건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뿌리째 뽑혀 흙까지 싱싱한 ㉢ 야채를 보면 야채가 아니라 푸성귀라고 불러 주고 싶어진다. 손에 흙을 묻혀 가며 푸성귀를 손질하노라면 같은 흙을 묻혔다는 걸로, 그걸 씨 뿌리고 가꾼 사람들과 연대감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흙에서 낳아 자란 그 옛날의 시골 계집애와 현재의 나와 지속성까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것은 아주 기분 좋고 으쓱한 느낌이다. 어쩌다 슈퍼에서 깨끗이 손질되어 스티로폼 용기에 담긴 ㉣ 야채를 보면 공장의 자동 운반 장치를 타고 나온 공산품 같지, 푸성귀 같지는 않다.

다들 조금씩은 마당이 딸린 땅집 동네라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 경제적인 이점은 미미하지만 청정 야채를 먹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그것도 약간은 부럽지만 나에게게는 대다수 보통 사람들이 먹고사는 대로 먹고사는 게 제일 속편하고 합당한 삶일 듯싶다. ㉤ 무엇보다도 내 단골 트럭 아저씨에게는 불경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 박완서, 「트럭 아저씨」 -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나’는 현재까지도 채소 농사를 짓고 있다.
- ② ‘나’는 트럭 아저씨의 채소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
- ③ ‘나’의 동네는 화초와 채소를 같이 가꾸는 집이 많다.
- ④ 식구들은 채소를 다듬고 있는 ‘나’의 모습을 좋아한다.

15. ㉡와 같이 관용적 표현이 사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생은 환절기마다 목이 아프다.
- ② 언니는 작품을 고르는 눈이 높다.
- ③ 오빠는 발이 넓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 ④ 누나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쉽게 믿는다.

16. ㉠과 ㉣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손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② ㉠은 직접 심고 키우는 보람을 느끼게 한다.
- ③ ㉣은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리게 한다.
- ④ ㉣은 씨 뿌리고 가꾼 이들과 연대감을 갖게 한다.

17. ㉠과 ㉡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성품은?

- ① 무심하다.
- ② 까다롭다.
- ③ 인정스럽다.
- ④ 계산적이다.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거슨 상하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리케 귀절을 쪼여 쓴즉 아모라도 이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각국에서는 사롭들이 남너 무론하고 본국 국문을 몬저 비화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비오는 법인디 조선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비오드리도 한문만 공부 하는 싸둑에 국문을 잘아는 사롭이 드물미라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마가 나흔거시 무어신고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들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디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보고 알아보기가 쉬홀터이라 한문만 늘써 버릇하고 국문은 폐흔 싸둑에 국문으로 쓴진 조선 인민이 도로혀 잘 아려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알아보니 그게 엇지 한심치 아니히리오

- 「독립신문」 -

18. 윗글의 표기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문장 부호가 사용되었다.
- ② 주격 조사는 ‘이’만 사용되었다.
- ③ 어두 자음군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④ 이어 적기와 끊어 적기가 모두 사용되었다.

19.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문은 한문보다 배우기가 쉽다.
- ② 조선에는 국문을 잘 아는 사람이 많다.
- ③ 국문을 쓸 때 구절을 띄어 써야 알아보기 쉽다.
- ④ 국문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보게 하려 한다.

20.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꽃샘추위가 물러가는 4월입니다. 우리 ○○회에서는 그동안 ㉠ 미렸던 정기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건기 대회를 개최하오니 ○○회의 ㉡ 구성원으로써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기한 내에 ㉢ 절대로 납부해 주십시오. 단, ㉣ 비와 바람이 불 경우 건기 대회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 미웠던
- ② ㉡: 구성원으로서
- ③ ㉢: 꼭
- ④ ㉣: 바람과 비가 내릴 경우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허 생원은 ㉠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조 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다. 그렇다고 싫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조 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꿈무늬에 선 동이에게는 확실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짓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봉평서야 제일가는 일색이었지.”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젠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원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지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끝은 핑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성 서방네 처녀는 봉평에서 뛰어난 미인이었다.
- ② 성 서방네는 허 생원을 피해 제천으로 도망갔다.
- ③ 허 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나려고 물방앗간으로 갔다.
- ④ 동이는 허 생원의 이야기를 듣기가 거북해서 꿈무늬에 섰다.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 ① 인연을 회상하는 시간 | 인연을 맺은 시간 |
| ② ‘대화’로 이동하는 시간 | ‘봉평’에 머물렀던 시간 |
| ③ 창피함에 주저하는 시간 | 기다림에 설레는 시간 |
| ④ 이야기를 하는 현재 시간 | 이야기 속의 과거 시간 |

2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짧고 압축된 문장으로 사건을 급박하게 전개하고 있다.
- ④ 험준한 산길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두려움을 주고 있다.

24. 조 선달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① 허 생원의 말을 동이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 ② 허 생원의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아 주고 있다.
- ③ 허 생원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돕고 있다.
- ④ 허 생원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25.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I. 서론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
- II. 본론
 - 1. 저출산 문제의 원인
 - 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증가
 - 나. ㉠
 - 2.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 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나. 가정을 배려하는 직장 문화 조성
- III. 결론
 - 해결 방안의 적극적 실천 당부

- ① 출산율 감소 실태
- ②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 ③ 직장 일과 육아 병행의 어려움
- ④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의 필요성

※ 확인 사항
답을 OMR 답안지의 해당란에 정확히 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